

자가 슬괵건 보강술을 이용한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치료 Treatment for Anterior Cruciate Ligament Injury with Augmentation Using Autogenous Hamstring Tendon

가톨릭의대 정형외과학교실

최남용 · 인 용 · 송현석 · 윤종성 · 성병윤 · 권재영

서 론

전방십자인대 손상의 치료는 슬관절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고유감각기능(proprioceptive function)의 회복도 중요하다. 최근 전방십자인대의 기계적 수용체(mechanoreceptor)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가능한 한 남아 있는 전방십자인대를 보존 하여 치료를 하려는 수술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저자들은 전방십자인대 손상 환자에서 남아있는 다발을 보존한 상태로 자가 슬괵건을 이용하여 보강술을 시행한 후 추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1월부터 2007년 6월까지 자가 슬괵건(Hamstring tendon)을 이용하여 전방십자인대 보강술을 시행한 후 2년 이상 추시가 가능 하였던 26예(남 20예, 여자 6예, 평균나이 31세)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 추시 시 관절 운동범위, 전방전위 정도, pivot shift 검사 및 슬관절의 기능적 평가를 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전방 전위 정도는 KT 1000 관절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슬관절의 기능적 평가는 Modified Feagin Scoring System과 Lysholm score를 측정하였다.

결 과

관절 운동범위는 모든 예에서 최종 추시시 0~150도로 운동 제한은 없었으며, KT-1000 관절계를 이용한 경골 전방 전위에서는 20lb 부하시 정상측과 비교하여 평균 2.1 mm의 차이를 보였다. Modified Feagin knee scoring system에 의한 기능 평가는 92의 결과를 보였으며, Lysholm score는 술전 평균 72점에서 술후 평균 92점으로 향상되었다.

결 론

전방십자인대 손상 치료시 남아있는 다발을 보존하고 자가 슬괵건 보강술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 추천될 수 있는 수술 방법의 하나로 사료된다.